



제3차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춘천시

일시 2021.11.29 (월) 14:00 - 16:30

장소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제3차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춘천시

목차

행사일정	2
개회사	3
환영사	7
발제	11
토론	31

일 정	주 요 내 용
14:00 - 14:20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개최식
14:20 - 14:50	[발제 1] 국가식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지역 먹거리 보장 강화 방안 [발표] 길청순 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제 2] 춘천시 푸드플랜 주요 성과와 추진계획 [발표] 용해중 과장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
14:50 - 15:00	휴식 및 장내정리
15:00 - 15:55	[지정토론] [좌장] 윤병선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위원, 건국대 교수 푸드플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먹거리순환 체계 구축 [발표] 이병운 교수 강원대학교 교수/푸드플랜 실행지원 전문자문가(fd)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발표] 서용석 과장 동춘천농협 지속가능 먹거리를 위한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사례 [발표] 전기환 위원장 춘천시먹거리육성위원회 푸드플랜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보장 확대 방안 [발표] 석재은 위원 농특위 먹거리보장소분과, 한림대 교수 지역 공동체 중심의 먹거리 돌봄 사례 [발표] 김선옥 이사장 춘천워커즈협동조합
15:55 - 16:20	[종합토론]
16:20 - 16:30	폐회식

개회사

개 회 사



정 현 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농특위가 춘천시와 함께 개최하는 ‘제3차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 참여 해주신 이재수 춘천시장과 강원도 및 춘천시, 강원지역 푸드플랜 담당 공무원, 농어민·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점점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의 위기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을 책임지는 농어촌은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2월 농특위는 국민 먹거리 보장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 폐기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먹거리 정책의 현장인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여 기초-광역-국가가 이어지는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국가식량계획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과제인 ‘먹거리 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의 연계방안과 먹거리 돌봄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춘천시는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 주민들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춘천시의 푸드플랜과 연계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먹거리보장 확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타 지자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춘천지역 먹거리육성위원회 사례와 같이 민관협치로 푸드플랜 활성화, 먹거리보장 확대, 나아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 이웃, 더 나아가 미래세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오늘 현장간담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강화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농특위도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이재수입니다.

춘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세 번째 자리가 춘천에서 열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춘천시정부의 구호 중, 하나가 ‘먹는 것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먹는 것을 생각하면 군침부터 돌게 되죠.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며,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먹는 것에 바탕에는 생산, 바로, ‘농업’이 있습니다. 농업은 땅을 바탕으로 기후와 환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정부는 ‘춘천 푸드플랜’에 근거해 생산부터 밥상까지의 전 과정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고 함께 잘 먹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이제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라는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융복합이 바로 ‘춘천 푸드플랜’입니다. 농(農)과 식(食)의 만남, 식(食)과 농(農)의 하나 됨입니다.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먹거리 융복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공공 급식의 식자재 공급은 생산의 안정화를 가져옵니다.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공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 및 소비자 연계를 통해 농업 기반의 6차 산

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립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입니다. 농산물에는 생산자의 인격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먹거리의 신선과 안정성으로 나타납니다. 소비자 역시 내 아이가 먹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 농업인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는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하고, ‘먹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푸드플랜 활성화와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과의 연계방안’입니다. 시정부는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된 급식을 대체하고,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는 지역 농산물로 만들어진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먹거리 돌봄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정현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장 이재우

발 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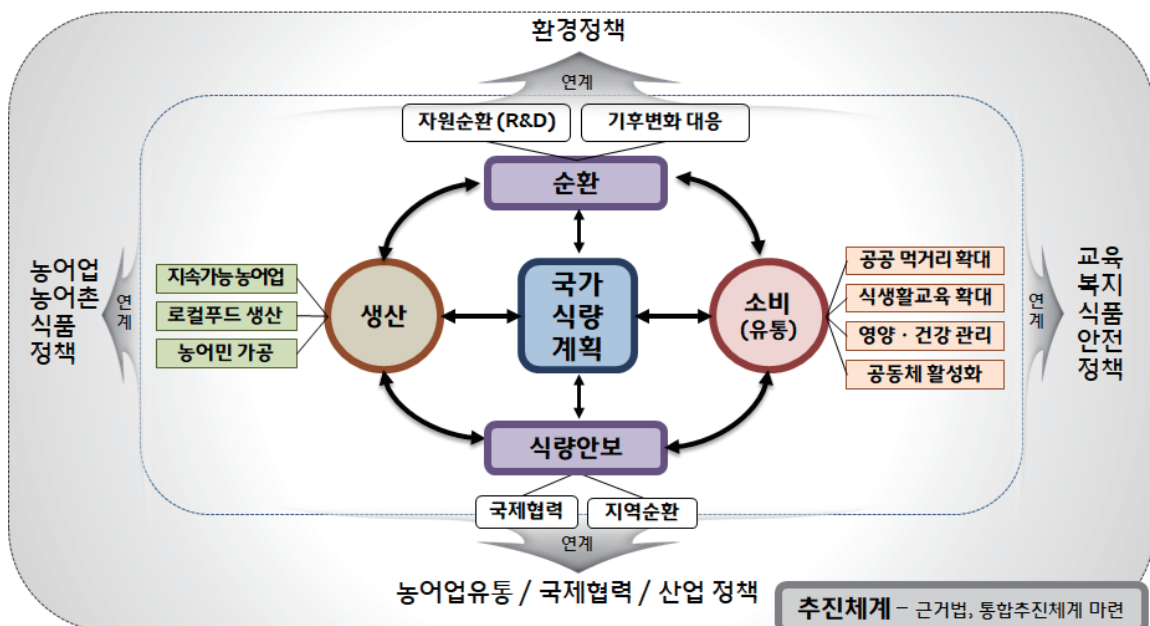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길청순 위원

2 수립 목적



3 국가 식량계획의 체계 · 구조

(정의)국민의 먹거리 관련 국내·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 단위 범부처 통합 전략
(기능)먹거리 순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관계되는 주체 간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통합 계획



4 국가 식량계획의 성격

국가 식량 계획은 먹거리가 ‘지향하는 가치’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지역순환, 공동체 가치 등),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

구 분	고 려 사 항
생산·공급	안정적인 식량생산, 식량안보 제고, 위기대응력 강화, 지역 생산·소비 연계, 공급·유통 채널 다양화,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등
환경·안전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노력, 친환경 농어업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식품 안전관리 방안 등
소비·생활	생산자(농어업)-소비자 연계성 강화, 균형있는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 강화 등
복지·보장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적 공급, 학교·공공급식 품질 향상, 국민 전반적인 건강·영양 수준 향상 등
사회·통합	먹거리 중심의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생산-유통-소비-폐기 정책 간 연계

5 국가 식량계획 수립 기본 방향

식량
안보

국내 생산-소비기반 확대를 통해 식량 자급능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위기대응 역량 강화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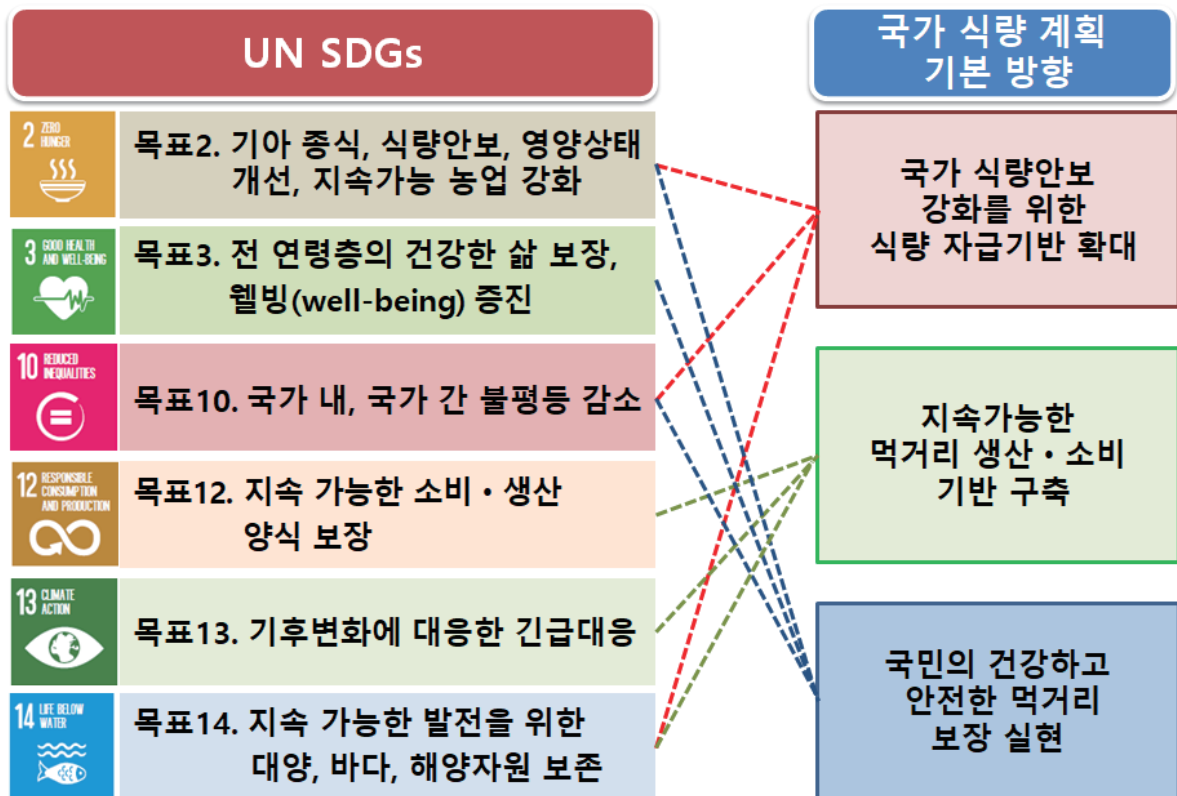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을 바탕으로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제고

먹거리
보장

국민 개개인의 생애 전 주기 먹거리 보장과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성



6 국가 식량계획 비전과 전략

비전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	
기본 방향	①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구축 ③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	
중점 과제	식량안보	(국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강화 - 식량·사료·수산물 자급률 제고, 생산기반 관리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등 (지역) 지역단위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단위 생산·소비기반 확충, 접근성 제고, 가공식품 육성 (국제)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국제협력 강화 - 농어업 협력강화, 해외 자원 활용 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탄소중립·생태 농어업 전환) 탄소중립·생태 농어업 전환 - 환경친화적 농어업 전환, 탄소흡수기반 강화 (먹거리 손실·폐기) 음식물류 손실·폐기 감축 - 생산·유통·소비단계별 먹거리 손실 감축, 먹거리 손실관리 정보체계 구축 (인식 제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확산, 교육체계 마련 등
	먹거리 보장	(영양·건강) 균형잡힌 식생활 지원 - 영양위약·대량 집중관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영양·건강 제공, 나트륨·당류 섭취저감 노력 등 (안전한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생산환경 개선, 위해요인 관리,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 등 (공공성 강화) 생애 전 주기, 차별없는 먹거리 제공 -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확대, 품질 및 관리체계 개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먹거리 돌봄 등
	추진체계	(통합추진체계) 통합적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업 및 민간 협치 기반 마련 ※ 관계부처 지속 논의 - 거버넌스 구축지원,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 먹거리 중심의 사회협약 확산, 시민사회 참여 독려,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식량안보 강화

① 식량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강화로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
 ⇒ [목표] 자급률 제고 : (말) '20년 1.0% → '30년 10, (콩) 30.4% → 45 (수산물) 73.3% → 80

② 지역단위 생산·소비 선순환체계 구축
 ⇒ [목표] 지역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 : ('20) 67개 → ('22) 100

③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 협력 강화
 ⇒ [목표] 농림수산분야 유무상 경제 협력 비중 : ('20) 7.5% → ('30) 8.0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① 탄소중립·생태 농어업 전환으로 생산단계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목표] 화학비료(중분토비) 대체, 농약 항생제 사용량 감축 : ('30년) 50%(18년 기준)

② 음식물류 폐기를 감축으로 유통·소비·폐기단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 [목표] 음식물류 폐기물 : ('30년) 17년 발생량의 10~20% 감축

③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강화
 ⇒ [목표] 국산·농산물·이물 실천율(%) : ('19) 60.8 → ('24) 70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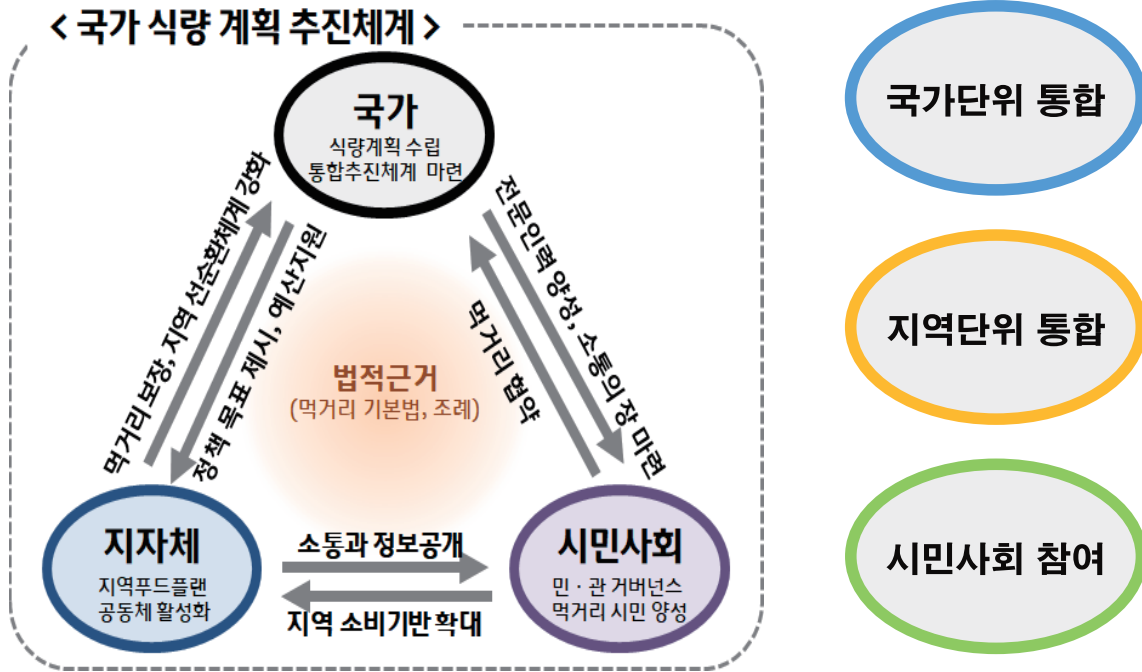
① 국민의 영양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한 삶 영위
 ⇒ [목표] 건강수명 : ('18) 70.4세 → ('30) 73.3
 ※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두고 산출한 지표

② 위해요소 선제적 대응 등 먹거리 안전관리 개선
 ⇒ [목표] 축수산물에 PLS제도 도입 : ('19)농산물·('24)주요 축산물 및 어류의 동물약품·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사용허가 동물용의약품·농약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

③ 취약계층 대상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목표] 먹거리 취약계층(65세 이상, 19세 미만)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축소 : ('18) 65세 이상 14.4%, 19세 미만 35.1% → ('30) 10%, 30%

7 국가식량계획 추진 체계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및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위한 먹거리기본법(안) 제정 추진



8 지역 먹거리 보장 강화 방안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먹거리 보장 체계 강화
현물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의 양적·질적 보장 강화

- (‘20.11.11. 농업인의 날 대통령 말씀) 저소득층, 임산부, 돌봄 학생, 어르신들이 신선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 현물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

- 농식품바우처(시범/농식품부) : 저소득 취약계층에 채소, 과일, 계란, 우유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지원
- 과일간식(시범/농식품부) : 초등 돌봄교실대상 과일간식 및 식생활교육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시범/농식품부) : 임산부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
- 우유급식(농식품부)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대상까지 우유 무상급식
- 영양플러스(보건복지부) :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영양아, 임산부 등)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학교

군대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
시설

의료
시설

공공
행정

9 함께 고민해야 할 이슈들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성명서'

**특정 농가와 기업에 생색내기용
농식품부의
'전국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검토를 요청합니다.**

- ✓ 업체를 통한 '컵 과일' 제공, 안전성 확인되지 않아
- ✓ 과일 간식에 따른 1식 권장 열량 검토되지 않아
- ✓ 과일 간식 가공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초과 노동 문제 발생
- ✓ 무상급식비와 농식품부의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통합으로 급식에서 충분히 과일 제공할 수 있어

2021. 10. 14.

서울교사노동조합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군 급식 개선 종합 대책

1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 ① 先 식단편상 後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 도입
- ② 관행화된 공급방식 개선
-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지정 개선
- ④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폐지 등

2 조리인력을 확충하고 조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①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교육 강화
- ② 조리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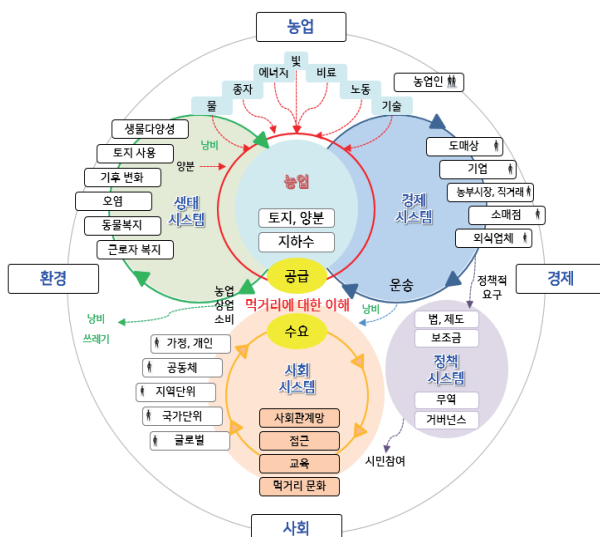
3 급식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① 기본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 ②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 ③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 강화

※ 마치며

◆ 먹거리 공공성의 개념과 의의

- (개념) 먹거리 의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국민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자 가치
- (의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달성함으로써 먹거리와 관련하여 국민전체가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 있음



유엔 식량시스템 정상회의 (UN Food Systems Summit)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식품(food)은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식품의 가치를 평가하던 방식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의 거래 상품 종목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인간이 누구나 공유하는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발 제 2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안심농식품과
용해중 과장

농업과 그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춘천푸드플랜! 지역순환체계구축

 춘천시 안심농식품과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CONTENTS

춘천푸드플랜!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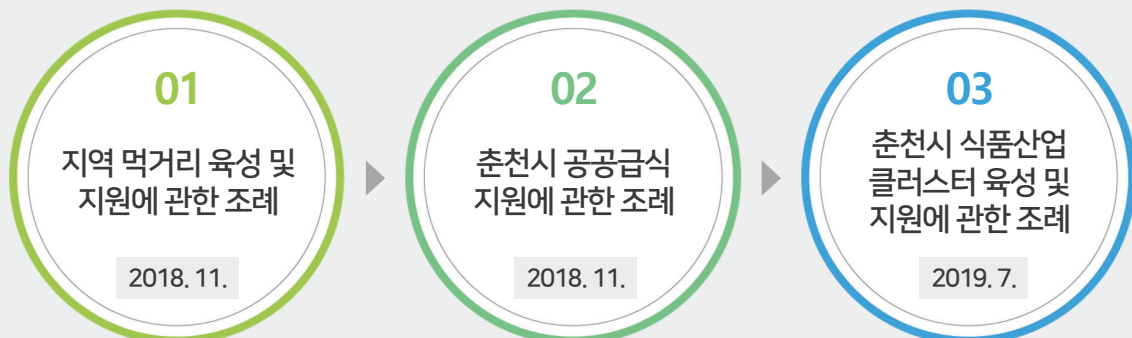
- 01. 지역푸드플랜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
- 02. 우리 안의 자원 - 로컬푸드로 행복한 도시
- 03. 농업과 그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 04. 지속가능한 먹거리 육성 - 향후계획

춘천 지역푸드플랜 수립



그 시작은, 춘천 '지역푸드플랜 수립' 부터!

추진근거마련



01

지역푸드플랜 수립 및 거버넌스구축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시민참여 기반 마련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2019. 4. / 45명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공공급식 지원대상,
방법, 규모 등 결정

2020. 2. / 15명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식품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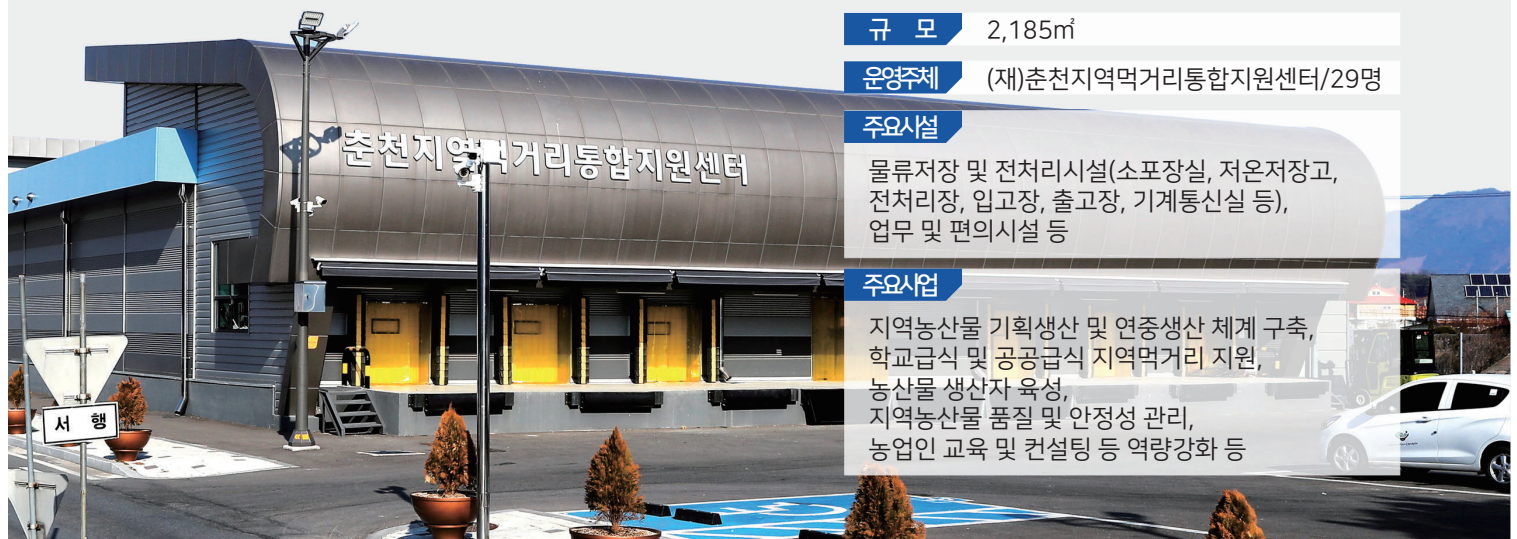
2019. 6. / 20명

02

우리 안의 자원 – 로컬푸드로 행복한 도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75억 원 설립일 2019.6.26.

위 치 춘천시 마장길 39(농수산물도매시장)

규 모 2,185㎡

운영주체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29명

주요시설

물류저장 및 전처리시설(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전처리장, 입고장, 출고장, 기계통신실 등),
업무 및 편의시설 등

주요사업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역먹거리 지원,
농산물 생산자 육성,
지역농산물 품질 및 안정성 관리,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등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현황

2019

학교급식

9개교 2,809명 대상
식재료 공급

2020

학교급식

(연초) 32개교 →
(10월) 60개교 공급학교급식용
농산물꾸러미 공급관내 학생
33,321명

2021

학교급식 운영

75개교
식재료 공급

공공급식 운영

17개소
식재료 공급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가정으로 꾸러미 배달
- 꾸러미당 55천원 / 24개 품목

꾸러미구성

한우, 계란, 돼지고기, 백미, 떡볶이떡, 브로콜리,
부추, 오이, 두부, 구운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사과즙 등 / 관내생산



안심먹거리 공급기반 육성

소량다품목 출하
농가육성

117품목 101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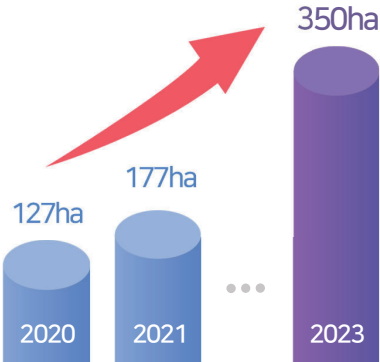
+

다소비 품목
집중 육성

9품목 129농가

+

친환경 농업 집중육성



안전 안심먹거리 관리체계 강화

GAP, 친환경
인증관리

+

지역 먹거리
인증제 도입

잔류농약 허용기준
50% 미만
2020년 총 127건

+

농산물 안정성
검사 실시

2020년 실적
총 464건

학교급식관련 : 총273건
(적합 270건, 부적합 3건)
로컬푸드직매장: 총191건
(적합188건 부적합3건)

+

안전성 분석강화



출하 전 잔류농약,
방사능 등 검사

+

식생활 교육 추진



50백만원(2,500명)

시민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기회 제공
(농촌 현장 체험 실습교육,
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교실)

지역먹거리 직매장 건립 (로컬푸드 지역 내 순환체계 강화)



지역먹거리 직매장 신축

사업비	25억(국비 6, 도비 3, 시비 16)
건축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위치	삼천동 22-15
사업규모	건물 1동 / 지상 1층 / 연면적 587㎡ / 부지면적 1,200㎡
주요기능	농축산물 직매장, 물품준비실, 사무실, 카페 등



먹거리 보장 체계 구축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



1,682명 108백만원

취약계층 꾸러미 공급



210,881회 541백만원

우수농산물
사회복지시설 공급

11개 97백만원

노인도시락 꾸러미 지원



310명 288백만원

장애인 꾸러미 지원



113가구 120백만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공급



도내 2,485명 1,193백만원

02

우리 안의 자원 – 로컬푸드로 행복한 도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로컬푸드 추진 성과

2020 로컬푸드 지수 “우수지자체” 선정

- 전국 159개 중 13개 지자체 선정
- 2020년 우리 시 로컬푸드 지수 상승 요인(강점)

2021 로컬푸드 활성화 중점 관리지역 선정

- 우수지역을 통한 전국 로컬푸드 성공모델 확산
- 농림부 지정, 전국 5개 시군 선정



03

농업과 그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먹거리가 식품산업과 만나다.



다양한 로컬푸드 활용 먹거리 산업 지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현황



위 치 춘천시 신샘밭로 299

규 모 28억 / 668㎡

농가공장비

건식, 습식,
반찬가공 및 착유류
58종

교 육

*춘천시
농가공협동조합
교육

*2020. 12. 설립

농가공품 개발



농가공품 개발

85명/108개 품목

다양한 로컬푸드 활용 먹거리 산업 지원



봄애취애

50%이상의 로컬푸드 사용량 업체들의 인증을 통한 홍보,
컨설팅, 시설장비개선 등 지원

실적 : 현 4개소 인증

농식품산업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유투브 생중계 : 7월 6일 10시부터

주 소 <https://youtu.be/bSmx8-EdmPA>
시민투표 7월 6일 10시부터

아이디어 경진대회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연계, 식품산업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창업아이디어 지원

실적 : 총지원금 2억원 10개팀 지원

03 농업과 그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청년중심 식품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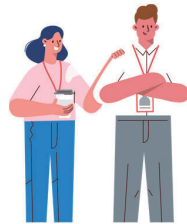
식품산업인큐베이팅 현황



사업기간 '19. 6. ~ '22. 12.

사업예산 934백만원(3년)

사업내용 1



식품산업분야 청년창업인 지원
(마케팅, 메뉴개발, 인허가사항 등)

+

사업내용 2



지역먹거리와 식품산업
연계 기반 조성

+

사업내용 3



지역 먹거리와 외식업 원료
공급 및 조달

03 농업과 그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청년중심 식품산업 육성

청년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아울러'

사업기간 '20. 12. ~ '2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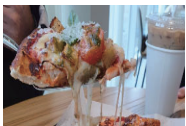
사업예산 804백만원(3년)

사업위치 강원도 춘천시 뱀내길 6번지

사업내용 식품산업분야 청년창업인 지원
(마케팅, 메뉴개발, 인허가 사항 등)

추진실적 1

청년창업지원



추진실적 2

지역 내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 개발



03 농업과 그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청년중심 식품산업 육성

 먹거리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건립

사업기간 '20. ~ '22. 6.(준공예정)

사업예산 10,000백만원

사업위치 근화동 154-7번지 일원

주요사업 1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창업공간지원 19개소

주요사업 2



먹거리 지원센터, 우리술연구원,
시민문화공간 등 조성

04 지속가능한 먹거리 육성 - 향후계획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지속가능한 먹거리 육성 향후 추진계획

1



로컬푸드순환체계 구축 생산자조직 확대

- 다품목 연중 안정공급체계 : 30개품목 500명
- 고령, 원거리 농업인 참여 확대 읍면 거점 조성
- 읍면별 순회 수거 사업 추진 : '22년 3개소
- 친환경 농업 확대 활성화 : '23년 350ha

2



로컬푸드 소비촉진 기반 확대

- 시 먹거리 사업 발굴 로컬푸드 현물지원
- 레고랜드 및 군남 연계 등 공공급식 확대
- 소비자 식생활교육 확대추진
- 서울시 등 대도시 공공급식 진출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21 2개 ⇒ '24 7개

3



식탁에서 만나는 안전안심 로컬푸드

- 춘천로컬푸드 커뮤니티 센터 건립 및 거버넌스 육성
- 소비자가 먼저 찾는 춘천푸드 육성
 - 춘천푸드 매거진, 홍보물 제작
 - 로컬투어 프로그램 기획
- 푸드마일리지 제로화 시스템 구축
 - 로컬푸드 미니 직매장 건립

4



우리자원의 세계화

- 닭갈비, 막국수 향토음식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04 지속가능한 먹거리 육성 - 향후계획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 춘천



.. 춘천이 먹거리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15

푸드플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먹거리순환 체계 구축

발표자 : 이병훈 교수(강원대학교 교수/푸드플랜 실행지원 전문가(fd))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생산·유통·급식·소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또한 푸드플랜은 식품의 생산·가공·물류·도소매·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의 효율화는 물론 식품 안전성문제, 식품 폐기물 처리 같은 환경문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푸드플랜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공 위주의 접근방식은 효율성을 저해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면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푸드플랜 모델을 수정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푸드플랜의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푸드플랜 관련 조직은 운영 효율성과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현재 푸드플랜은 학교급식·공공급식·로컬푸드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지역농협, 중도매인, 생산자 단체, 단체급식 기업 등을 활용하지 않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새로운 조직을 설립·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주력 품목 및 공급 대상별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존 조직을 이용하지 않아 비용이 증가하고 공공 주도의 조직이 갖는 운영상 한계가 따를 수 있다.

(2)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하다. 식량안보라든지 하드웨어 구축 등 양적 정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바, 실제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양적 먹거리 공급 부족뿐만아니라 이들의 균형있는 영양섭취 부족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영양안보 성격의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정책도 부재하고, 이같은 먹거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도 전무하다.

(3) 푸드플랜은 지역의 경제, 인구, 농업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푸드플랜은 특정 모델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식량정책은 지방여건에 맞게 독특하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기반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는 로컬푸드 위주의 푸드플랜이 한계가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외 판매가 농식품의 지역내 유통구조보다 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4) 먹거리 생산·유통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푸드플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선진국은 도시에서의 식품정책을 기존 시장 위주의 푸드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추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 유통시스템을 보완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이 우려된다. 푸드플랜은 기존 민간 유통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먹거리의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5) 푸드플랜은 로컬푸드와 연계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생산과 지역소비의 완전한 구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지 생산/소비 순환을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것입니다.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지역에 새로운 작부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기반을 마련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푸드플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

발표자 : 서흥석 과장(동춘천농협)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로컬푸드직매장



추진 방향

- ▣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 고품질 안전 지역 농산물의 생산·출하 촉진
- ▣ 지역민의 농산물 구매 편의성 제고



중점 추진 전략

- ① 연중 안정적인 직매장 출하체계 구축
- ②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③ 6차 산업 및 사회적 기업과 제휴로 상품구색 강화
- ④ 푸드플랜 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1

연중 안정적인 직매장 출하체계 구축

□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조직화 강화

- 사업설명회, 참여농업인 교육 확대 및 내실화
 - 로컬푸드 사업의 이해 및 직매장 운영원칙 등 집중 교육
 -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소개
 - 지역별 농업인조직화(공선·공동출하회)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 * 교육과정 : 집합교육(임직원), 현장교육(임직원+농업인)
- 직매장-출하농업인 출하약정 지도강화
 - 중점 지도사항 : 출하농업인 조건, 출하관련 사항, 판매일수 사항, 재고와 그 처분에 관한 사항, 클레임 사항, 출하농업인 제재사항

□ 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

- 출하회 내 지역별, 품목별 소그룹화를 통한 직매장 연중공급 시스템 구축
- 출하 농업인 대상 품목별 재배매뉴얼 보급 및 재배 강습회 운영
 - 농진청, 품관원 등 전문기관 협조
- 품목 공급 원활화를 위한 출하농업인- 직매장 운영협의회 활성화

□ 연중 상품공급체계 유지를 위한 지자체 지원 협조

- 계절적 요인에 따른 비수기 상품수 감소 방지 방안 지원
 - 지원분야 : 하우스 지원 사업, 가공 사업 확대 등
 - * 하우스 생산 병행 시 노지에 비해 품목수와 출하 기간 확대 가능
- 저장 농산물 상품 공급기간 확대를 위한 저장시설 지원 등

〈추진 방향〉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영속적인 소비자 신뢰 구축

-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 가장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

□ 단계별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

○ 생산단계 : 농산물품질관리원 연계 잔류농약 검사 실시, 농가교육

- * 농협·농관원 간 업무협약(‘15.3월)에 의거 ‘20년까지 매년 3천건 진행 중이며, 향후 협약개정을 통해 ‘20년 이후 까지 연장 추진
- * 농가교육은 PLS 교육 중점 추진

○ 유통단계 : 강원대학교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위탁검사 및 식품안전지도

- 순회 컨설팅을 통한 취급농산물 수거검사, 원산지 관리, 관련 법령 준수사항, 신고·허가사항 교육 등

* 수거검사 : 첨단정밀분석장비를 이용, 위해식품 차단(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 로컬푸드직매장 안전성관리 모니터링 실시

○ 실시시기 : 직매장별 분기별 1회 이상

○ 실시방법 : 자체 점검표 작성 실시 및 현장실사

- 로컬푸드 식품안전 관리 매뉴얼 이행여부 중점 점검
- 부적합 직매장에 대한 경고, 시정 요구, 잠정폐쇄 등 조치

□ 출하농업인·직매장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의식 고취

○ 출하농업인·직매장 담당직원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식품안전관련 권역별 집합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등

○ 식품안전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 지속 발굴·보급 등

〈추진 방향〉

◆ 6차산업·사회적 기업과 적극 제휴

◆ 신규상품 발굴 확대 및 기존상품의 상품성 강화

□ 6차 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 로컬푸드직매장을 중심으로 해당 시군의 6차 산업 및 사회적 기업 간 MOU체결

- 매장 내 6차 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코너 설치
- 가공식품, 생필품 등 공동개발
- 판매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 등

* 6차 산업 기업(농촌 융복합산업 기업)

-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자원을 활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기업
(6차 산업 인증기업 : 총 802개<'16년말 기준>)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 체험마케팅 및 지역특화상품 개발 협력

- 「직매장+외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비자의 자발적 소비 유도
 - 베이커리, 카페, 농가레스토랑 등 복합유통 공간화
- 직매장 상품중 반응이 좋은 상품을 지역 대표상품으로 특화

- 직매장별 수요특성을 반영한 상품 별도 개발 협력
 - 매장형태, 지역, 인구, 생산자 구성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각기 다른 농산물 수요 발생 감안

< 사례 >

- ▶ ‘순수 직매장형’, ‘관광 연계형’, ‘2차 가공 모델형’, ‘3차 체험 모델형’ 등 별도 개발
 - 관광 연계형 : 수확체험 혹은 지역 스토리가 있는 농산물
 - 2차가공 모델형 : 지역생산 딸기잼, 포도잼 등
 - 3차 체험 모델형 : 숙박, 제조 체험 가공품(메주, 두부, 꽃감 등)

- 직매장 취급 농산물의 상품성 강화 협력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제품 개발 확대
 -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선물용 제품 지속 개발

< 사례 >

- ▶ 신선 쌈채류+쌈장 모듬, 펜션 숙박권+바베큐 꾸러미(채소류+축산물)상품 등

4

푸드플랜 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추진방향〉

◆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푸드플랜 사업 참여로 지역발전 및 지역 내 농협 위상 제고

□ 지역내 공공급식 사업 연계 추진

- 지역내 공공급식 소요 식재료 일부를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공급
 - 춘천시먹거리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식재료(농산물) 일부 공급

□ 지역 푸드뱅크 사업 참여

- 직매장 재고품을 지역 내 저소득층에 무상공급
- 저소득층에 직매장 이용쿠폰 발행 지급을 통해 건강한 과일, 채소에 대한 접근성 지원

□ 지역 소비자에 대한 먹거리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소비자, 학생 대상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도농상생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 환경개선 운동 참여

- 자원재활용 차원의 직매장 상품 포장 간소화, 쓰레기 감축 등

춘천시 먹거리육성위원회 역할과 과제

발표자 : 전기환 위원장(춘천시먹거리육성위원회)

1. 춘천시먹거리육성위원회 구성과정

- 제7기 민선시장 선거로 당선된 현시장의 시정준비위원회 먹거리분과에서 먹거리 관련한 시정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춘천시정의 목표 하나로 ‘먹거리가 행복한 춘천’ 세움.
-
- 2018년 지역푸드플랜 수립 시범지역으로 춘천시 선정
- 생산자, 소비자, 지역 먹거리운동 활동가등이 참여하는 춘천푸드플랜 민간 tf 구성하여 춘천푸드플랜 용역사와 함께 춘천푸드플랜을 수립에 참여
- 2018년 12월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2019년 4월 이 조례에 의거하여 공개적 공모절차를 통해 민관이 참여하여 15명으로 구성함
- 구성원 행정3인(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정담당과장 및 안심농식품과장) 시의원 1인, 유관기관 2인(농협, 농도매시장), 생산자 4인, 교육 1인, 시민사회 단체 2인, 식품, 요식업 2인
- 위원장 민간위원중에 선임.

2. 1기 2기 춘천시먹거리육성위원회 활동

1) 위원회 역할에 대한 토론

-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역할을 춘천시 먹거리 관련 정책 기획 및 심의, 평가 단위로 성격을 확인
-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2개분과위 구성(소비 유통, 생산분과)
-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민간 간사 필요성 확인
- 상설적인 활동을 위해 매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유사한 조례 통폐합을 통한 먹거리육성위원회가 실질적인 먹거리 정책의 거

버너스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 위원수 확대와 5개분과(생산, 공공급식, 식교육, 소비유통, 식품) 재편 논의

- 21년 4월 2기 위원회 구성시 분과위원을 45명으로 확대하여 공개 구성하여 3개분과 활동(생산, 소비유통, 식교육) 시작, 공공급식과 식품 분과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급식위원회와 식품산업클러스터에서 논의하기로 함.

2) 춘천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사업

① 거버넌스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춘천푸드플랜의 실행을 위한 활동가 양성을 위해 춘천푸드플랜 아카데미 개설

- 시민을 대상으로 1기 아카데미 개설
- 2020년 2월 100여명이 참가하여 5강으로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심도 있게 진행 되지 못하고 2021년 10월에 4,5강을 진행하면서 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

② 춘천푸드플랜 확산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학계, 먹거리활동가, 생산자, 행정, 교육, 소비자가 참여하는 춘천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3) 정책제안을 위한 활동

①위원회 회의 정례화

- 거버넌스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먹거리정책 논의

②춘천푸드플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

- 춘천푸드플랜 보고 및 강의 진행
- >위원 및 행정 구성원들에게 춘천푸드플랜을 이해와 실행을 위한 강연회 개최
- 행정 tf 구성 운영
- > 먹거리 관련 행정부서의 유기적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활동

③ 로컬푸드 소비확대를 위한 활동

-외식산업에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외식업로컬푸드 사업 업체 ‘봄애취애’ 업체선정 심의

3. 위원회의 이후 과제

1) 실질적인 먹거리정책기획 수립에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심의 의결 기능을 가져야 하며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한다.

- 조례에 심의가 명시 되어 있지만 1.2기 운영을 하면서 정책자문에 정도에 머물러 있다.

- 먹거리 관련 부서의 사업 통합 집행과 유기적 활동을 위한 먹거리 사업의 총괄 집행담당자(먹거리 정책 담당관)가 필요하다.

2) 먹거리사업 기획 단계부터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 자문이 아닌 정책 참여가 거버넌스 핵심이기 때문에 행정과 민이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논의하여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민간 위원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 책임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활동에 대한 현장성을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푸드플랜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보장 확대 방안

발표자 : 석재은 위원(농특위 먹거리보장소분과, 한림대 교수)



푸드플랜 활성화와 먹거리보장 체계

- ◆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 ◆ 안심먹거리 공급기반 육성
- ◆ 안전 안심먹거리 관리체계 강화
- ◆ 먹거리 보장 체계 구축
- ◆ 다양한 로컬푸드 활용 먹거리 산업 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먹거리돌봄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통합돌봄

- 거동불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살던 곳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주도로 사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 초고령사회 앞두고 비용효과적인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성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입원 및 불필요한 시설입소
지양하고 지역사회 돌봄 충실화

- 먹거리돌봄은 지역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돌봄

◆ 좋은 질의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지속적인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돌봄' 조성 필요

◆ 지역 격차 없도록 중앙 주도의 지역돌봄기금의 조성하고 함께 ICT 접 목을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 플랫폼 구축과 지자체 책임돌봄 및 민 관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ICT, IoT, AI,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과 전문인력 서비스 코디네이
터 역할 결합한 서비스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서비스
질 제고

◆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공적 서비스에 더하여 추가 구 매 서비스 및 공동체 호혜서비스 등 다층적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 다양한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에 더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와 생태계 조성 지원

- ◆ **(다층적 사회서비스 체계)** 공적서비스에 더하여 개별적인 추가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층위의 다양한 민간 사회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다층적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 다양한 수준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법제도 정비
 - 타임뱅크와 같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호혜적 돌봄 조직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법제도 정비

- ◆ **(지역밀착 사회서비스 비즈니스 및 일자리)** 사회서비스 관련 지역밀착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와 관참은 지역일자리 창출
 -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밀착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는 지역에서 쌓아 온 사회적 신뢰자본에 기반하여 공적제도 급여서비스, 추가적 시장서비스, 지역공동체 호혜적 서비스 등 다층적 사회서비스 제공주체로 역할 가능
 -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및 전문 돌봄 생태계 조성으로 전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행정안전부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사업: 춘천 및 화성 영양도시락서비스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2021)

춘천시 영양도시락사업과 먹거리돌봄 생태계

경제·사회·신체적인 이유로 적절한 식사에 어려움 상존,
식사·영양관리를 통해 건강악화를 예방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유지 지원



자료: 춘천시(2021)

사업내용

- (동지역) 1식 주5일 개별도시락 및 배달지원
- (외 광) 주1회 반찬지원

사업대상

- 건강악화 예방을 위해 식사·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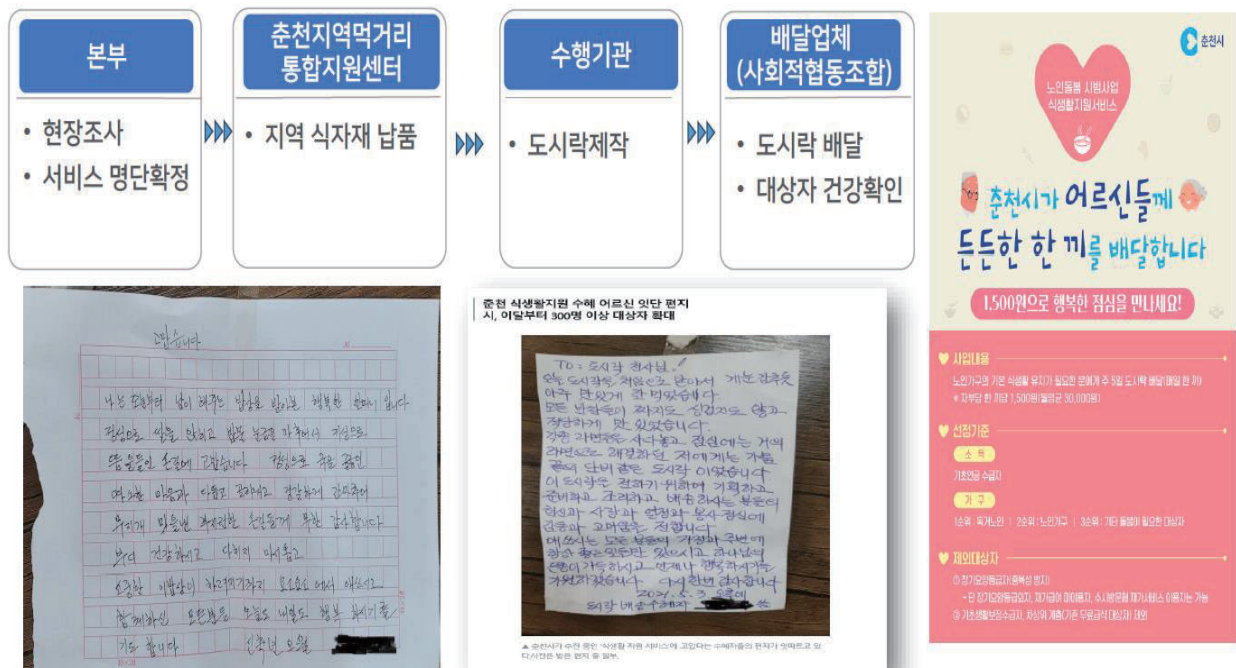
추진실적

- (동지역) 320명
- (외 광) 100명



(소 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자
 (건 강) 거동불편 영양결핍 > 거동가능 영양결핍 순

춘천시 영양도시락사업과 먹거리돌봄 생태계 (계속)



자료: 춘천시(2021)

사례: 복지유니온 주관 고령 만성질환자 영양간편식 지원사업

◆ 목적

-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식생활 욕구 조사
-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식사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고령 만성질환자가 자립적인 식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악화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추진실적

- 고령 만성질환자 242명 대상 개별 식생활 욕구 조사 및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스크리닝 결과를 기반으로 영양상담 및 식생활 훈련 시행.
-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실시 : 스스로 적정 식사량, 적정 수분섭취량, 간식량 등을 인지하는 훈련
- 만성질환 및 저작기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효과 분석 위한 2차 스크리닝 실시

자료: 장성오, 복지유니온(2021)

식사서비스 및 식생활 교육, 훈련 주요결과

- 삼키거나 사례 (음식과 물)가 자주 들던 것이 두드러지게 개선. 특히 정기적인 식사 배달을 통해 규칙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씹고 삼키는 훈련이 반복된 것이 섭취능력 개선에 기여
- 항상 단순하던 식생활이 식단을 기반으로 제공된 식사로 여러 가지 식품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식생활로 변화가 점차적 섭취능력 개선에 작용
- 식사배달서비스 및 교육을 통하여 3끼 섭취하는 사람이 늘었으며, 1끼 섭취가 2끼 혹은 3끼로 증가함. 한편, 식사횟수 증가로 전체 섭취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환경여건이 어려운 경우 배달된 식사를 1일 2회나 3회로 나누어 식사하는 경우도 발생함 (특히 당뇨질환자)
- 전반적인 식품군의 섭취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단백질, 채소류, 과일의 섭취빈도가 두드러지게 개선되었음. 이는 과일 등 간식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식사배달서비스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식사방해요인으로 저작곤란, 식욕저하, 소화불량, 변비 등 노화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상담교육을 통해 저작이나 연하곤란 등이 섭취를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해 수준 제고

자료: 장성오, 복지유니온(2021)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생태계 조성 및 제도화

◆ 먹거리돌봄의 중요성

- 먹거리돌봄은 건강관리와 돌봄의 기본
- 먹거리돌봄은 노쇠화 및 인지저하 속도 늦추는 데 기여
- 먹거리돌봄에 대한 실질적 체감 만족도 매우 높음

◆ 먹거리돌봄을 전문적 돌봄분야의 하나로 독자적 생태계 조성 필요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체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사회적 먹거리돌봄 재정 지원

- 먹거리돌봄, 영양급식(도시락 포함) 및 고령친화식품 구매를 위한 사회적 돌봄재정 지원

● 법체계 및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 먹거리돌봄, 영양급식 및 고령친화식품 지원법 마련
- 먹거리돌봄, 영양급식 및 고령친화식품 관련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공동급식 생태계)

- 영양균형 및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맞춤식단 고려한 식단 계획
- 먹거리 생산자와 신뢰 기반 직거래를 통한 질 좋은 먹거리 원료 확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 기관의 단체급식, 마을 공동식당, 도시락 배달

● (고령친화식품산업 생태계)

- 고령친화식품 기획
- 고령친화식품 생산
- 고령친화식품 유통
- 고령친화식품 소비

지역 공동체 중심의 먹거리 돌봄 사례

발표자 : 김선옥 이사장(워커즈협동조합)

 마을냉장고 운영 텃밭채소, 반찬 나눔 6월~9월 매주 화요일 11시 워커즈협동조합 공간 (거두락지길26번길 16-10) 누군가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생협, 로컬매장에서 장을 봐오고 누군가는 그 재료를 손질해 반찬을 만듭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마을냉장고를 채우고 비우며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프로젝트, 마을냉장고입니다! 우리마을돌봄공동체/춘천두레생협/춘천워커즈협동조합	마을냉장고 운영 주체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13회 운영 동내면 거두리 워커즈협동조합 공간에서 운영. 회원과 주민들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누고 반찬을 만들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코로나여파로 방문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적 제약에 의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함.
어린이 식당 2020년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식 이야기>를 연구한 춘천사회혁신센터 - 소소한동네 연구를 통해 코로나시대의 꿈자람카드 사용자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으며, 도출된 과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소셜리빙랩에 공모) (먹거리평등정의연대) 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식당을 운영하게 됨. 운영 : 10월 6회, 11월 12회 총 18회 운영 향후 : 실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어린이식당을 공공의 영역에서 모색해주시길...	 2021 춘천소소한동네살리기 혼자 먹지 말고 어린이식당 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에 어린이식당이 생긴다면 — 어른의 노동 귀가로 저녁밥을 재워 먹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랑 노느라 밥 먹는 시간을 놓친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녁밥이 그리운 친구들 — 밥 먹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식당 어때요? 연세부터 2021년 10월 14일~29일(9주 목, 금) 2021년 11월 3일~28일(9주 수, 목, 금) OK!새 장바구니 이용시간 오후 5시~7시 30분 이용금액 3천원 사전신청 반차 없는 친구 (다들 온데 반차 없애 주실 겁니다.) 먹거리평등정의실천연대 문의. 033-263-0256 010-0674-1929

결식아동을 위한 반찬나눔

춘천두레생협과 춘천위커즈협동조합 조합원이 업장이 위치한 동네면 동네초등학교 아동 중 학교의 도움을 받아 방학중 결식을 해소하기 위해 반찬나눔을 하고 있다, 처음엔 10가구로 시작하여 지난 여름방학엔 16가구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내용 : 주 2 회 (월, 목)
국과 반찬 3가지 / 친환경과 로컬 식재료로 만든 반찬 제공

반찬제공은 호응도가 높다.

춘천두레생협 & 위커즈협동조합이
방학중 결식아동 제3기 반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따뜻한 반찬나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3기 반찬 지원사업 안내 ★

- 기간: 2021.07.19(월) ~ 08.20(금) 총5주
- 대상: 인근 초등학교 결식아동 16가구
- 지원내용: 매주 월,목 반찬도시락세트(반찬3종+국1종) 배달
- 반찬조리: 춘천위커즈협동조합 반찬투정사업단
- 예산: 320만원
- 후원: 1인당 1만원 이상 자율적 동참
(다용방학 지원을 위해 정기후원도 환영합니다.)
- 문의: 춘천두레생협 033)264-6294
박미나 상무이사 010-2261-9702

후원계좌 안내
춘천두레생협 / 농협 351-0320-3635-43
춘천위커즈협동조합 / 농협 351-1101-9588-93
후원금은 위 목적 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후원금 사용에 대해 사업진행 후 결과를 보고해드립니다.

춘천두레생협 & 위커즈협동조합



☆고령자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소통 밥상 교실

주최 : 식생활교육 춘천네트워크 진행

주요내용 : 어르신을 위한 바른식생활 교육

실행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다양한 식재료로 영양이 가득한 반찬 두 가지전달. 올바르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식사지침 교육

2021년 7월부터 500명 대상 진행

* 동부노인복지관 긴급돌봄 410

* 소양효나눔복지관 90

이번주 “반쪽”반찬나눔에 일손을 보태 주실 분 찾습니다口 나눔의집에서 공동구매로 반찬을 만들어, 1+1으로 내것을 만들고 이웃에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정도 함께 합니다.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월1회 토요일 <반쪽> 반찬나눔 활동 후평동 수풍골 대한성공회춘천나눔의집서 동네어르신들께 나눔중....	
---	--

1.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먹거리 나눔 활동은 우리를 살맛나게 한다. 먹거리를 나누는 마음은 선하다. 선한 이웃들의 먹거리나눔이 지역안에서 서로돌봄의 관계망을 만들고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어 지속가능했으면 한다.
2.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부족하다. 큰 틀은 국가식량계획이며 자치단체의 푸드플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3. 춘천시는 민선7기 푸드플랜을 세우고 나름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제 소농이 웃으며 농사짓고 도시의 소비자가 동네마다 지역생산물로 먹거리 나눔활동을 하는 흐뭇한 일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그래야 소농도 먹거리로 행복하고 도시의소비자도 먹거리로 행복해지는걸테니.

2021.11.29

제3차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춘천시